

『濟州 4·3』과 『4·3 文學』

『JE JU 4·3』 and
『4·3 Literature』



글 | 梁 瑞 允
(SUH YOON YANG)

건설안전기술사/CMP
한국씨엠이엔지(주) 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회장
한국방송통신대학 국문학과 졸업
E-mail : syyang-01@hanmail.net

The epoch-making event of history called 『JE JU 4·3』 took place in JE JU beautiful island on liberation political situation in 1948.

The cruelties of this event were reported awful life loss over 30,000, cruel slaughter by government, scorched villages in mountain area, silence exaction and disadvantage of implication for long time over 40 years.

But, the real features are in still a fog..

Recently, the searching movement has arised owing to democracy atmosphere and literature works with 『JE JU 4·3』 materials were published from 1988 and the government announced official apologies in 2003.

The novel 『The Sun-set on Halla Mt.』, one of those works, is accessible to real history due to its time/space back ground and the real name of persons who were related with this event. It is important for readers to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real history and fiction story. Because a historical novel should be evaluated by writer's theme rather than history character.

해방 정국을 맞은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 일단의 무장대가 서북청년단등 우익단체 요인을 습격, 무장 봉기가 시작되었다. 봉기의 원인에 대한 고찰은 차치하고, 3만여명이라는 엄청난 인명 희생, 관권을 앞세운 무자비한 학살, 중산간 마을의 초토화, 관련자들이 연좌제에 묶여 시달리며 1980년대 후반까지 아무도 그 진상 규명을 거론조차 할 수 없었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제주 4·3』은 하나의 역사적 금기사건으로 파묻혀 왔다.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제주 4·3』은 제주 읍내의 3·1절 행사시 5·10단선을 반대하는 시위 군중에게 경찰이 무차별 발포, 14명의 사상자를 낸 1947년 3월 1일부터 소위 입산 공비가 완전 소탕되고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 개방 된 1954년 9월 까지 7년 7개월동안 지속된 비극적 사건으로 봉기가 발생한 날짜가 1948년 4월 3일이므로 『제주 4·3』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그 시간적 배경은 그 후 침묵이 강요되었던 40년을 더하여 1988년 까지 연장되어져야 할 것이다.

3·1절 발포사건 이후 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여명이 구금되었고, 특히 1948년 3월에 경찰에 의한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해서 민중 불만이 거세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불행의 원인이 친미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의 야욕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된 것이 당시의 정치적 측면에서 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인구 급증으로 인한 실업문제, 계속되는 흉년, 미군정의 반강제적 곡물수입, 일

기술사마당 ◎ 문예

본에서의 송금 중단, 대일 교역금지와 생필품 부족 등은 도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귀환 인구의 급증은 사회 변화의 큰 요인이 되었는데 해외에서 얻은 노동 운동의 경험과 선진 사상의 유입 그리고 실업 문제는 사회 변동의 잠재 요인을 이루었고, 당시 유행했던 전염병도 민심을 불안케 한 요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배경이 깔린 가운데 일부 좌의 세력은 5·10 단선을 거부하고 외세를 배격하는 것 그리하여 통일 된 나라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 여기에 도민의 자기 방어적 생존권 투쟁이 결합되어 『제주 4·3』이 발발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제주 4·3』은 미군정 아래에서 한민족이 안고 있던 모순이 집약 되어 나타난 역사적 사건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으로 분할되던 좌우의 냉전 상황과 당시 제주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 그리고 저항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 민주화 분위기에 힘입어 40여년동안 은폐 왜곡되고, 침묵이 강요되었던 4·3 진상 규명 운동이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제주신문, 제민일보에 “4·3의 증언” “4·3은 말한다”가 연재되었고, 1994년 국회 4·3특위 구성안이 발의되어 마침내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03년 10월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공식사과발표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제주 4·3』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일찍이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출간 된 이후 80년대에 이르러 쏟아져 나왔는데, 작품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주 출신 작가들에 의하여 쓰여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며, 이들 일련의 “4·3 문학”을 출간 연대별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작가	책명	출판년도	출판사
현기영	「순이 삼촌」	1978	창작과 비평사
현길언	「우리들의 조부님」	1985	문학과 지성사
김일우	「섬 사람들」	1986	힘
현기영	「아스팔트」	1986	창작과 비평사
김석희	「땅 울림」	1988	실천문학사
김석희	「까마귀의 죽음」	1988	소나무
김석범	「화산도」(전 5권)	1988	실천문학사
현길언 외	「4·3도 유채꽃」	1988	전예원
오성찬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1989	실천문학사
현기영 외	「숨어서 쓴 섬나라 이야기」	1990	태성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전 3권)	1991	한길사
현기영	「마지막 태우리」	1994	창작과 비평사
현길언	「한라산」	1995	문학과 지성사
한림화	「풀잎이 바다에 눕기를」	1999/01	증명
현기영	「지상에 숟가락 하나」	1999/03	실천문학사

〈북한문학작품〉

함세덕	「산 사람들」	1950	희곡
강승한	「한나산」	1948	서사시
양의선	「한나의 메아리」	2000	문화예술종합 출판사

〈표 1〉 4·3문학

「산 사람들」이나 「한나산」은 해방 전후에 발표된 작품들로 이들 외에 북한에서 4·3을 소재로 한 작품이 창작 됐는지, 창작 됐다면 4·3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전혀 알려 지지 않은 상황에서 2000년에 와서 장편 「한나의 메아리」가 출판됐다는 사실은 북한에서도 제주 4·3의 문학적 형상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4·3 문학”에서 한림화의 장편 「한라산의 노을」은 다른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이점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작품은 작가의 오랫동안의 취재와 증언에 의한 증언문학이라는 것이다. 이는 제주 섬이 품고 있는 아픈 상처를 외부적 시각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격랑 속에서 살아남은 제주인의 절절한 육성을 통해 사건의 면모를 들추어 내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년간에 걸친 취재 기간 뿐만 아니라 그 시기도 4·3 진상일지가 일부나마 발표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둘째, 작품은 4·3 자료가 일부 발표되면서 실제 사건일지를 기초로 하여 시간적 배경이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등장인물도 사건에 관련된 실제 인물을 실명으로 등장시키고, 제주 지역의 실제 지명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으면서 『제주 4·3』의 진실에 충실하게 접근하고자 최초로 시도했던 역사사회소설이라는 점이다.

셋째, 작품은 『제주 4·3』의 성격을 패배자의 수난과 항쟁의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수난의 형상화를 통해

패배자의 입장에서 그 참혹성을 준열하게 고발하고 있는 고발문학이라는 것이다.

넷째, 작품은 작가의 향토애와 제주 방언의 활발한 활용이 돋보인다. 제주도가 낳은 작가 한림화는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섬 공동체에 대한 향토애가 대단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 작가의 향토애야말로 제주 민중의 삶 속에 오랫동안 금기로 묶여져 수난의 역사로만 감추어진 『제주 4·3』의 역사를 천착 재현하는 작업에 몰두하게 하는 근본적 동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작품에서는 제주 방언을 활발히 차용함으로써 지역의 현장감과 인물의 개성을 생동감 있게 살려내고 있다.

『한라산의 노을』에 나타나는 인물 군상으로 관권을 앞세워 무장대와 무고한 양민을 빨갱이라는 명목으로 살상을 자행했던 “토벌대”와 이에 맞서 무장 투쟁을 주도했던 “무장대”, 그리고 이 양대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어디에도 가담 하지 못하고 쫓기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도피 양민”的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벌대는 국가 권력의 폭력과 억압을 극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인물 군상이다. 경찰, 국방경비대, 서북청년단, 민보단 등이 포함된다. 토벌대에는 역사적 실존 인물을 실명으로 등장시키고 있는데, 조병옥 경무부장, 신우균 제주경찰 감찰청장, 박진경, 김익렬, 송요찬 등 국방경비대 9연대장 및 당시 이승만 정권의 현지 관리들이다. 작가는 이들 토벌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며 가해자

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서북청년단의 극악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무장대는 토벌대의 폭력과 억압에 맞서 투쟁했던 인물 군상으로 “이덕구 부대”를 포함한 입산자들로서 토벌대의 시각으로는 산사람, 산폭도, 입산 공비, 빨갱이로 치부 되는 유형으로 일본군이 남기고 간 장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무장대 측에 대해서도 이덕구, 김달삼 등 실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작가는 이들을 피해자적 인식을 가지고 따스하게 그려내고 있다. 무장대의 산 속에서의 비참한 생활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장 이덕구를 “장두”로 호칭하고 그의 최후의 모습을 그리면서 작품을 끝내고 있는데서 엿볼 수 있다.

도피 양민은 토벌대와 무장대의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못한 양민을, 즉 절대적 피해자 유형으로 작가는 인식하고 있다. 토벌대에게는 산사람들의 동조자 즉 빨갱이로 낙인찍혀 무장대에게는 토벌대의 앞잡이로 이리저리 내몰리고 팝박 받으며 숨어 지내다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대다수 제주민중이 이에 속한다. 도피 양민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약자라는 인식으로 출발하고 있다. 작품 전편에 묘사되는 양민 수난의 형상화를 통하여 비인간적 참혹성을 고발하려는 작가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의 노을」은 무장대 대장 이덕구의 죽음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며칠 후 이덕구의 시체가 열십자형 나무틀에 묶여 관덕정 마당에 전시되고, 사람들은 침을 뱉었다. 빨갱이 대장, 우리 원수, 에 더럽다(중략) 장두도 죽으난 별게 아닌게… 이덕구 시체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겨우뚱 기울어졌다. 시체가 입은 옷이 거친 오름 뒷숲에서와 다르고 왼쪽 윗주머니에는 놋 숟가락도 꽂혀 있었다.”

이덕구에 대해서는 제주출신 작가 현기영의 「지상에 숟가락 하나」에서도 “장두”로 호칭되었고, 그의 최후도 똑같은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관덕정 광장에 읍민이 운집한 가운데 전시된 그의 주검은 카키색 허름한 군복 차림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 시신이 예수 수난의 상징인 십자가에 높이 올려져 있었다. 두 팔을 벌린 채 옆으로 기울어진 얼굴, 한 쪽 입귀에서 흘러 내리다만 핏 물줄기가 엉겨 있었지만 잠자는듯 평온 했다. 그리고 집행인이 앞가슴 주머니에 일부러 꽂아놓은 숟가락 하나-(중략) 그리하여 그 날의 십자가와 함께 순교의 마지막 잔영만을 남긴 채 신화는 끝이 났다. 민중 속에서 장두가 태어났고 장두를 앞세워 관권의 불의에 저항하던 섬 공동체의 오랜 전통, 그 신화의 세계는 그날로 영영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덕구의 시체가 십자가에 올려져 관덕정 앞 마당에 전시되었고 앞가슴 주머니에 숟가락 하나가 꽂혀있었다는 양 작가의 묘사는 취재 증언에

의한 역사의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는데, 「한라산의 노을」이 「지상에 숟가락 하나」보다 훨씬 앞서 발표되었다는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한라산의 노을」은 수난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수난은 패배자의 역사이다.

최후의 1인까지 소탕되어버린 무장대, 희생을 강요당했으며 오랜 세월 연좌제에 묶여 가슴앓이하고 있는 양민들 편에서 작가는 그 참혹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무자비한 고문, 성폭력, 방화, 마을의 초토화, 집단 학살, 대살 등 그것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허구가 아니라 살아 남은자의 생생한 체험에 의한 증언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미친 악귀”로 표현되는 인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4·3』을 소재로 작품을 내고 있는 한림화, 현기영 등 작가는 수난의 참혹상을 형상화 하는 작업에서 손을 빼겠다고 선언하고 있을 정도이다.

제주 4·3을 미국에 대항한 반제국주의 통일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의 메아리」도 이덕구, 김달삼, 강규찬, 고진희 등 4·3 당시 무장대 간부들을 실명으로 등장시키고 있으며, 4·3의 발발과 김달삼·김익렬의 평화회담, 오라리 방화 사건 등 당시 역사적 사건들이 「한라산의 노을」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 4·3의 역사성에 접근 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다만, 「한라산의 노을」이 장기간 작품을 팔은 증언 문학으로, 「한나의 메아리」보다 거의 10년 전에 발표됐다는 것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를 승리자의 문학이라고 한다면 승리자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허구를 생산하고 진실을 왜곡·변형시킬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건일지에 근거하고 등장인물이 역사적 실명으로 등장하는 작품인 경우에는, 허구를 역사로 인식하기 쉽다. 문학적 허구가 역사적 진실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수록 문학이 아닌 역사로 변질되어질 것이다. 한편, 역사적 사건이 소설의 소재는 될 수 있으나 허구인 소설이 역사가 될 수 없음도 자명한 일이다.

작가가 다루는 문학적 소재로서 『제주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아직도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즉 그 역사적 평가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역사의 진실이 허구로 창조될 수 있는 반면, 또한 문학적 허구가 역사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양자의 접근은 상당한 신중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일련의 4·3 문학이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는 아직 정립 되지 못한 역사와 왜곡되어질 수 있는 진실 사이에서 그 평가를 유예 할 수밖에 없다. 소설이란 허구일 따름이며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차용한 작품으로서의 소설도 소재의 역사성보다 작가가 지향하고 있는 주제의식에 비중을 두고 작품을 해석·평가해야 할 것이다.

〈원고접수일 2010년 7월 30일〉